

15. 예수의 복음(신학)과 스캔들

A. 바리새인/서기관들의 신학 vs. 예수의 신학

질문.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나?

מֹשֶׁה קָבַל הַתּוֹרָה מִסִּינַי וּמָסְרָהּ לְיְהוֹשֻׁעַ וַיְהוֹשֻׁעַ לְזִקְנִים
וְזִקְנִים לְנְבִיאִים וְנְבִיאִים מִמְּרֹוֹהָ לְאֲנָשֵׁי כְנֶסֶת הַגְּדוֹלָה

Moses received Torah from Sinai and delivered it to Joshua; then Joshua to the elders, the elders to the prophets, and the prophets delivered it to the men of the Great Assembly (m. aboth, 1:1)

- 자신들이 ‘정통’이라는 주장=> 예수 깎아내리기
- 히브리성서의 구성=> tripartite and concentric
- 히브리성서와 구약성서의 차이는?

대답(counter-question): 장로의 유전의 기능은? => 성서(토라)를 해석

- 예수의 방법론=> 대화(Socrates, Dialogue). 네 말이 맞다고 치고, 거기서부터 출발....
- 입에서 나오는 것은 =< 마음의 것, 생각/철학/신학. 결과적으로, 지키고 전하고자 한 그 것(Torah)를 무시, 배척=> 외식하는 자 (헛되이 경배)
- 바리새인/서기관은 자신들의 논쟁(trap)에 자신들이 걸림 (Shame & Honor system)

스캔들/걸림돌(Scandal => σκανδαλίζω) 마태(14), 마가(8), 누가(2), 요한(2), 고전(2), 고후(1)

- 마 11:6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(ὅς ἐάν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 ἐν ἐμοί)... => 표준세번역,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(“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...”) => 마 14:31 ?
- 마 13:57 예수를 배척한지라 (ἐσκανδαλίζοντο ἐν αὐτῷ) => “예수로 인해 실족한지라”, 혹은 “예수에게 걸려 넘어진지라”
- 마 15:17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(ἐσκανδαλίσθησαν)을 아시나이까.
- =>요 6:61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? (σκανδαλίζει)

B. 용어정리—믿음이 크다, 적다

- 네 믿음이 크도다(μεγάλη σου ἡ πίστις) vs. 믿음이 적은 자여(ὀλιγόπιστε)
- 믿음은 자로 셀 수도, 무게를 달 수도 없다=> 정보/과학의 언어를 벗어남.
- 그렇다면, 예수의 한탄, 실망을 말하든지 (Expressive) 혹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 (의심=>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방향=> 14:31)을 요구

생각해 보기

1. 예수가 내게 걸림이 된 적이 있나? 내게 걸림이 된다면, (예수의) 무엇이 걸림이 되나?
2. 이를 극복하는 길은?